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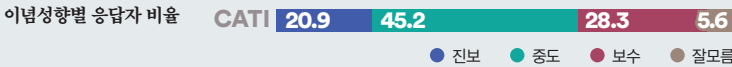
제104차 CATI조사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CAT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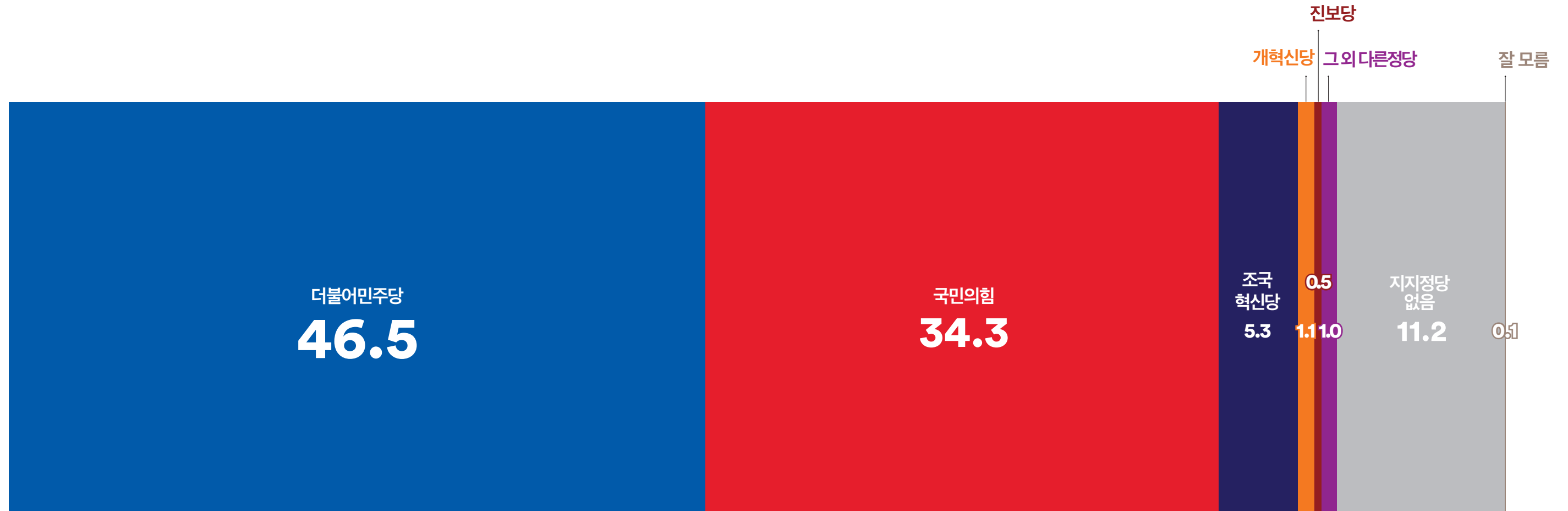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성별		지역			
표본크기	1,000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00	100.0	1000					10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성별	남성	496	49.6	494					49.4	0.99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29,999개 / SKT: 15,000, KT: 9,000, LGU+: 5,999)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여성	504	50.4	506					50.6	1.00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5년 1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연령	18~29세	152	15.2	154					15.4	1.01
응답률	12.4% [총 통화시도 8,039명]			30대	152	15.2	149					14.9	0.98
조사기간	2025년 2월 28일 ~ 3월 1일(2일간)			40대	173	17.3	174					17.4	1.00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202	20.2	196					19.6	0.97
				60대	173	17.3	177					17.7	1.02
				70세 이상	148	14.8	150					15.0	1.01
			지역	서울	187	18.7	185					18.5	0.98
				인천·경기	324	32.4	324					32.4	1.00
		대전·세종·충청		105	10.5	108	10.8	1.02					
		광주·전라		97	9.7	97	9.7	1.00					
		대구·경북		98	9.8	98	9.8	1.00					
		부산·울산·경남		148	14.8	147	14.7	0.99					
		강원·제주		41	4.1	41	4.1	1.00					

WWW.
FLOWERRESEARCH.
COM

본 조사 결과의 저작권은 (주)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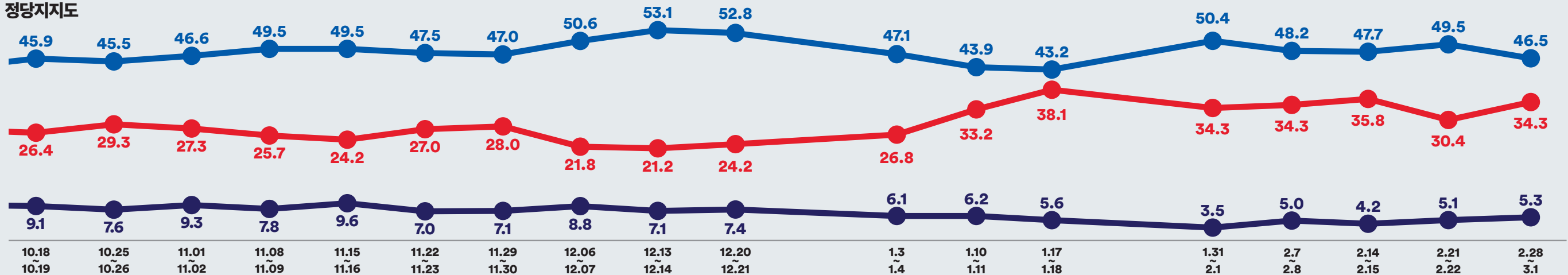
본 조사결과는 표본조사이므로 결괏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괏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수 할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당지지도와 국정운영 평가는 재질문을 포함한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되는 '무당층'은 보기에서 '지지 정당 또는 후보가 없다'라고 응답한 계층을 의미합니다.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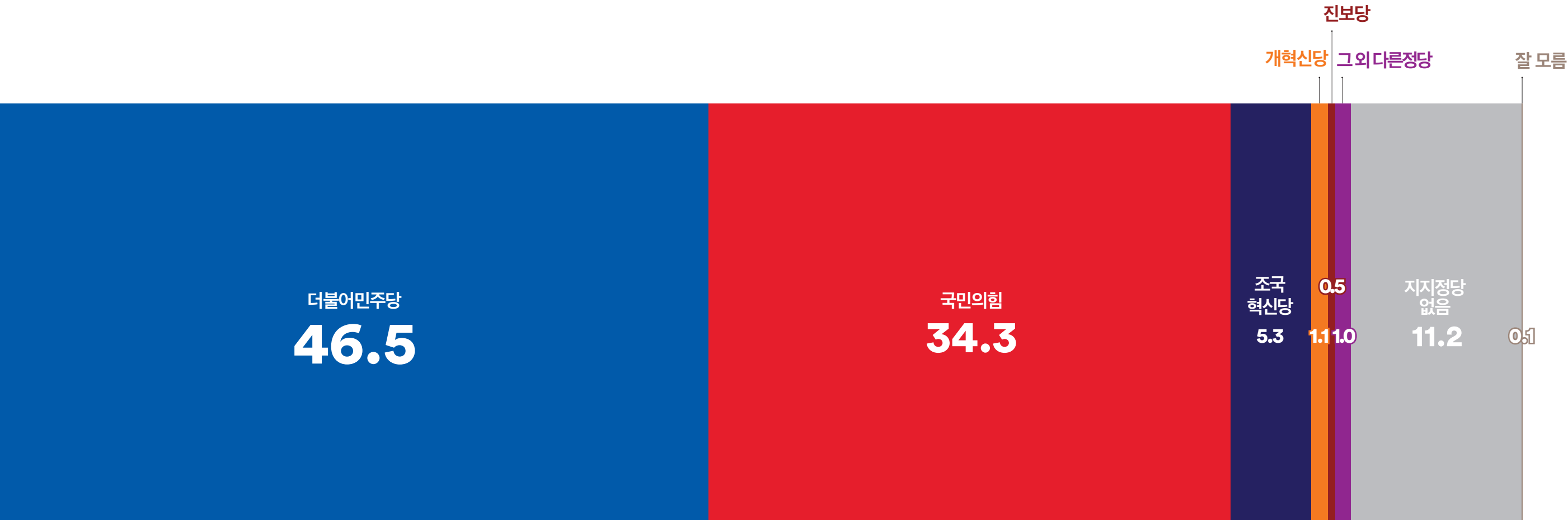
103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3.0%p 하락, '국민의힘' 3.9%p 상승, '조국혁신당' 0.2%p 상승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간 격차는 12.2%p (지난 조사: 19.1%p)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국민의힘'간 격차는 17.5%p (지난 조사: 24.2%p)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모두 '국민의힘' 대비 우세

주차별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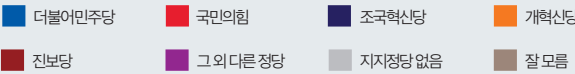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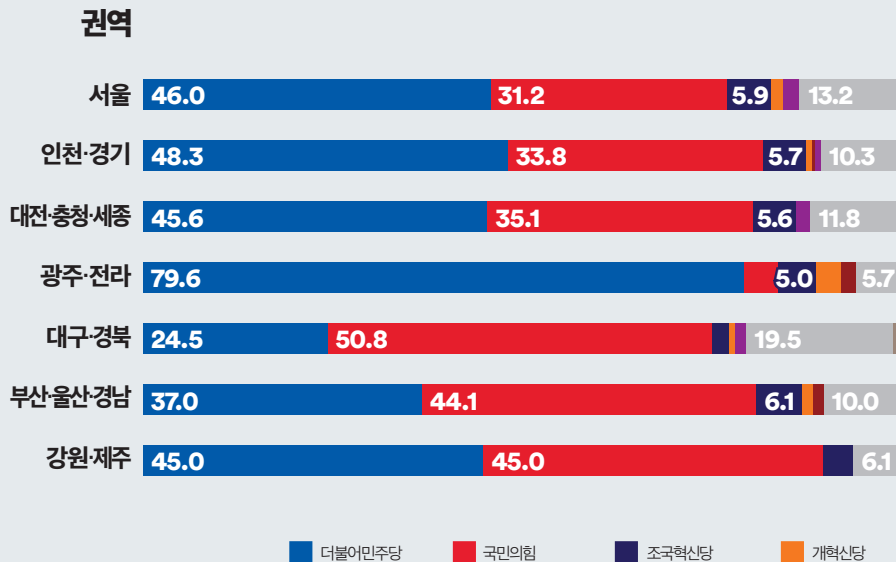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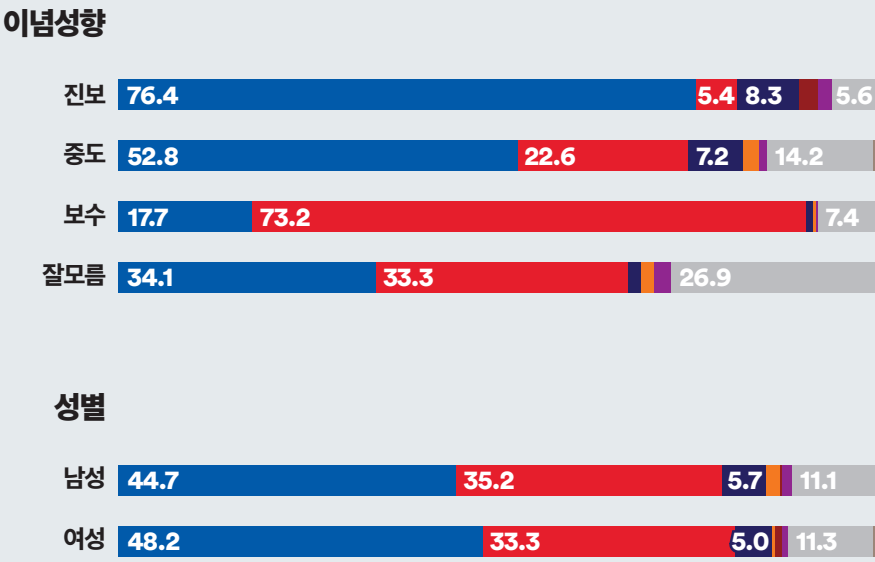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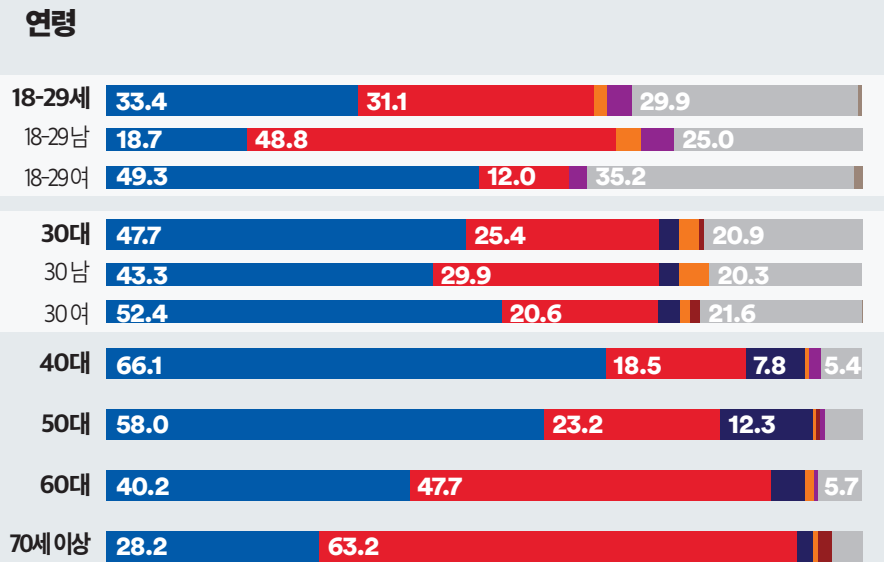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그외 다른 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수도권·충청권·호남권과 30~50대 응답층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거나 우세
‘국민의힘’은 TK·PK, 60대 이상 응답층과 보수층에서 앞서거나 우세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52.8%, ‘국민의힘’ 22.6%, ‘조국혁신당’ 7.2%
중도층에서의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간 격차는 30.2%p(지난 조사: 34.3%p)



Q. 다음 인물 중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 묻는 CATI조사에서 ‘이재명’이 ‘김문수’ 대비 압도적 우세(격차: 31.8%p)

남성층에서는 ‘이재명’ 43.7%, ‘없다’ 16.5%, ‘김문수’ 12.7%, ‘홍준표’ 7.6%, ‘한동훈’ 6.1% 순
여성층에서는 ‘이재명’ 43.5%, ‘없다’ 18.9%, ‘김문수’ 10.8%, ‘한동훈’ 6.7%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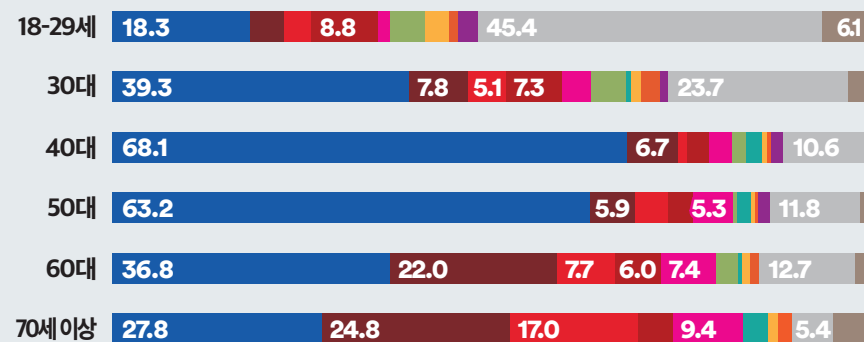
모든 권역 및 모든 연령층에서 ‘이재명’이 앞서거나 우세

18-29세 응답층에서는 ‘없다’ 45.4%, ‘이재명’ 18.3%, ‘홍준표’ 8.8%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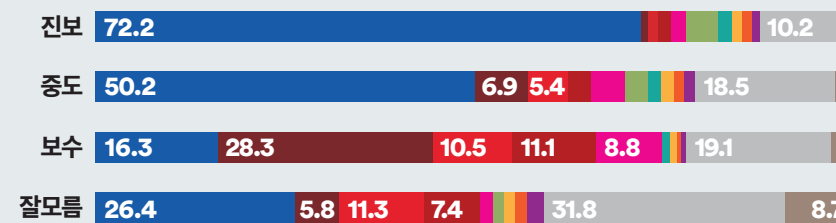
18-29세 남성층에서는 ‘없다’ 46.9%, ‘홍준표’ 16.0%, ‘이재명’ 9.0%, ‘김문수’ 7.4% 순

18-29세 여성층에서는 ‘없다’ 43.7%, ‘이재명’ 28.4%, ‘우원식’ 9.5%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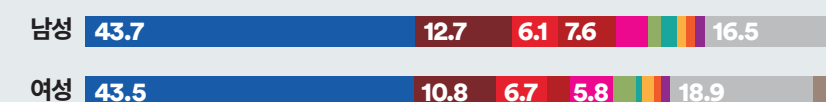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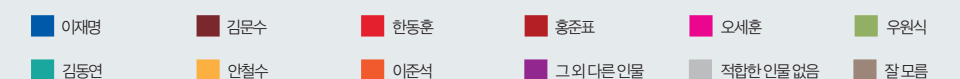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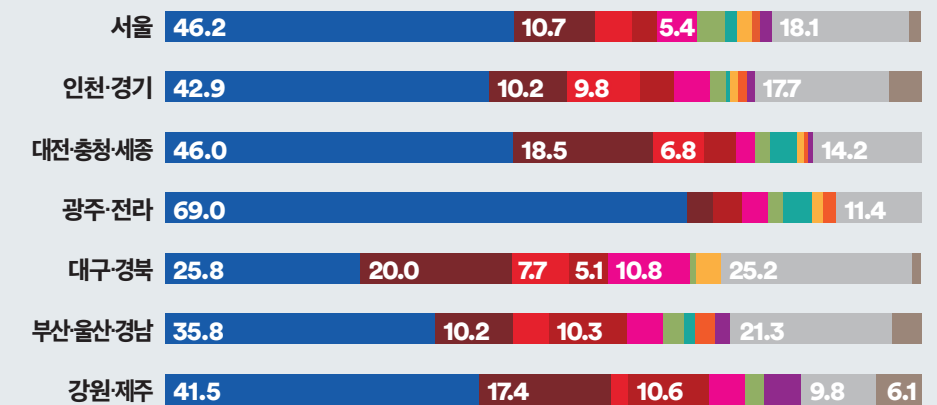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권역



Q. 다음 인물 중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 묻는 CATI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81.9%, ‘없다’ 7.3% 순

국민의힘 지지층은 ‘김문수’ 32.5%, ‘없다’ 19.6%, ‘한동훈’ 14.7%, ‘홍준표’ 12.4%, ‘오세훈’ 11.8%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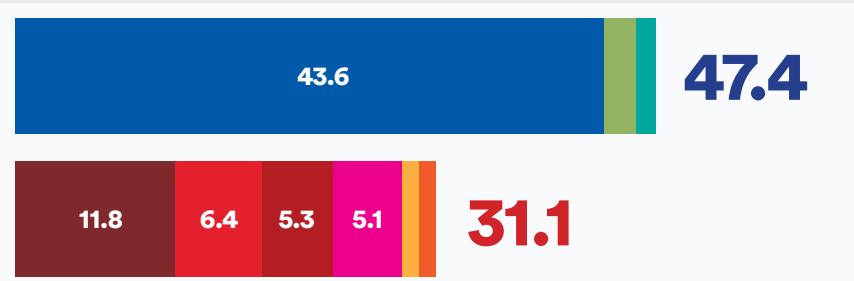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이재명’ 73.0%, ‘없다’ 11.6% 순

진보층은 ‘이재명’ 72.2%, ‘없다’ 10.2%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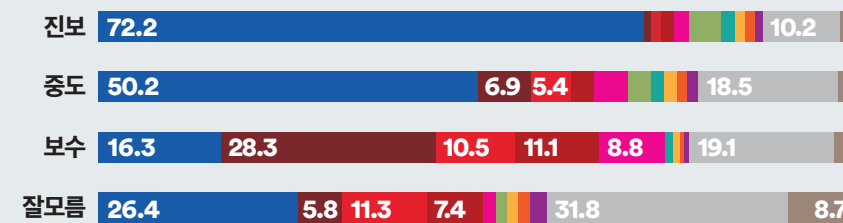
중도층은 ‘이재명’ 50.2%, ‘없다’ 18.5%, ‘김문수’ 6.9% 순

보수층은 ‘김문수’ 28.3%, ‘없다’ 19.1%, ‘이재명’ 16.3%, ‘홍준표’ 11.1%, ‘한동훈’ 10.5%, ‘오세훈’ 8.8%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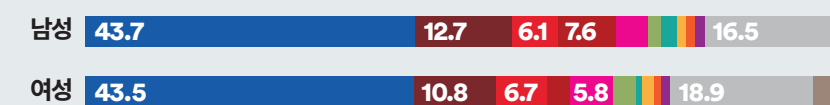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계열 후보 vs 국민의힘 계열 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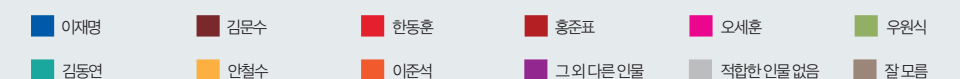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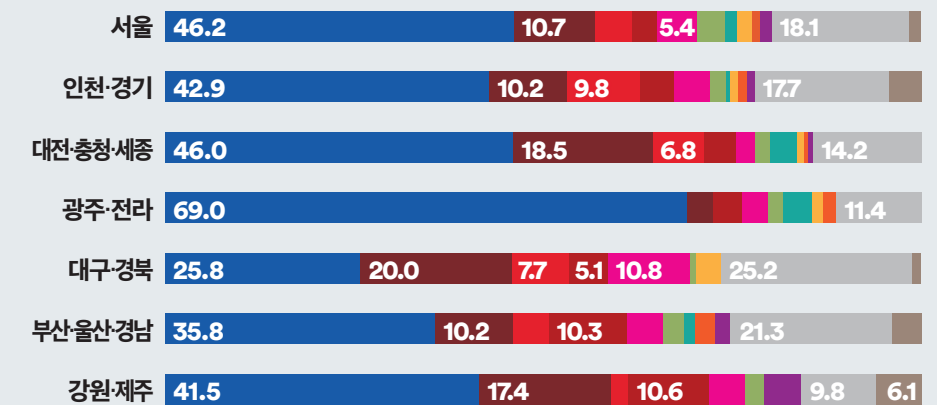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권역



Q.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을 시사하는 통화녹음이 공개됐습니다.
공천개입 의혹 관련 김건희씨 소환조사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건희씨 소환조사는
필요하다

68.1



“여보세요?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으, 그냥 밀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2022년 5월 9일 김건희와 명태균 통화 녹취 내용 중]

김건희씨 소환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27.7

잘 모름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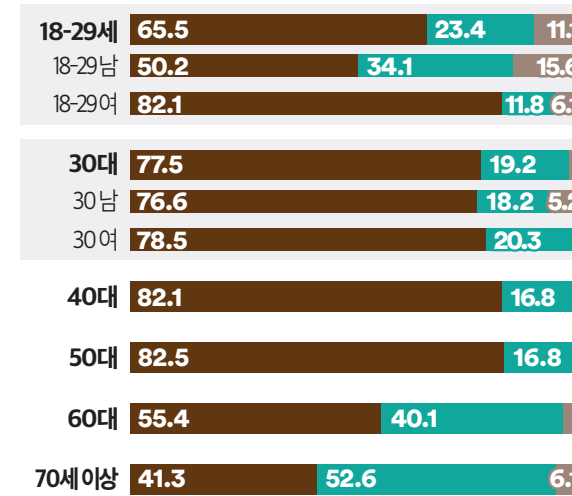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녹취와 관련해

응답자 10명 중 7명 가까이가 ‘김건희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응답(응답 간 격차: 40.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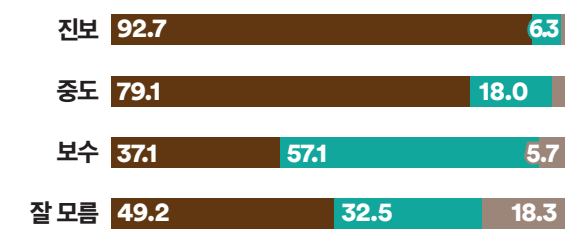
모든 권역과 60대 이하 연령층, 중도층·진보층에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1.1%)과 보수층(57.1%)에서 우세를 보임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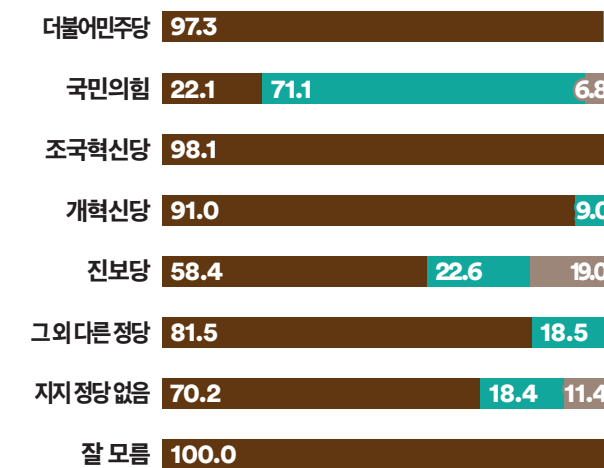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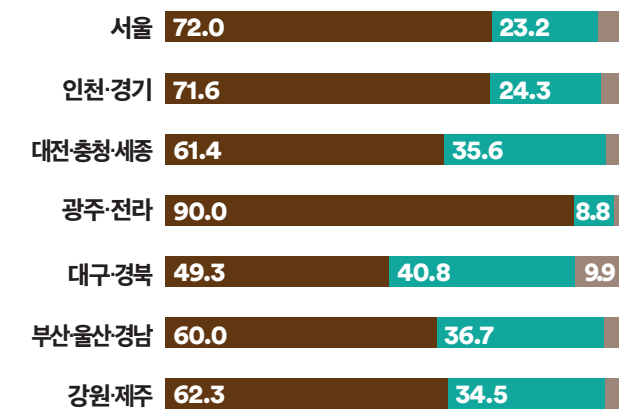
성별



정당지지도



권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잘 모름

Q. 명태균 측은 오세훈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오세훈 시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사실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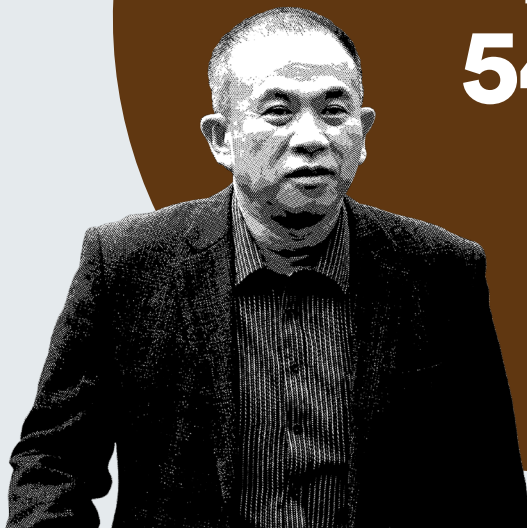
오세훈의 주장이
사실일 것
24.9



“(명 씨를) 끌어내는 과정이 한 달 가까이 걸려서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계속 캠프 근처를 맴돌면서
‘자기 여론조사를 사라’고 해서 끌어내는 과정은 좀 있었습니다.”
“1차로 ‘당신 물건 안 산다’ 했던 게 1월 말경이고,
2차로 계속 와서 이야기해서 끌어냈던 게
2월 중순 정도로 되는 걸로 정리가 됩니다.”

[2025년 2월 28일 뉴스파이팅 오세훈 시장 인터뷰 중]

명태균의 주장이
사실일 것
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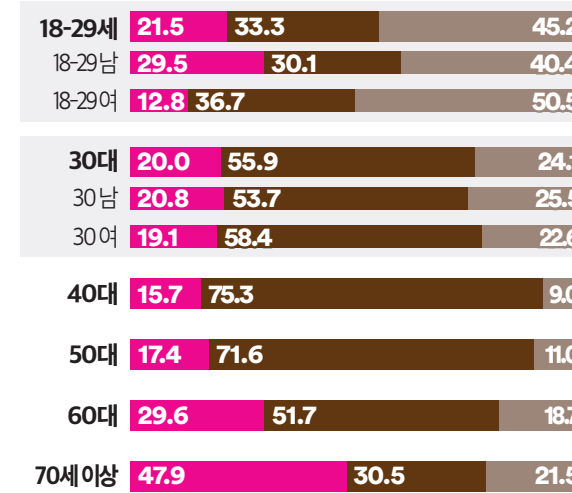


잘 모름
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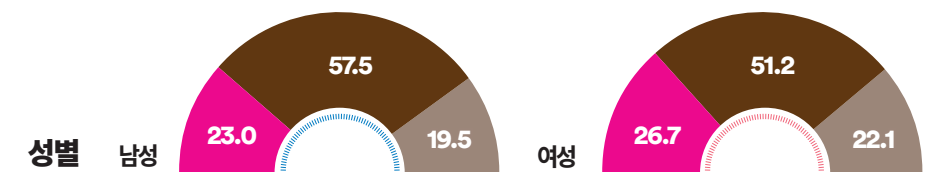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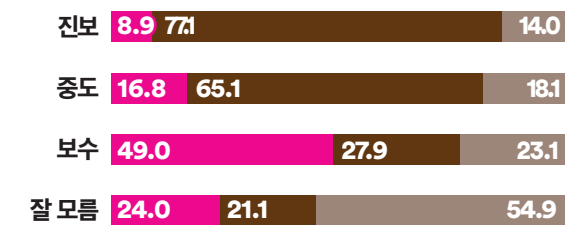
“나는 주변 사람이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배신 배반형.”
“내가 오세훈이 그XX는 내가 김영선이 하나 챙기려 했는데...”
“촌에서 올라온 놈하고 폐물, 폐물된 김영선이
지(서울시장)만들었다는 소문이 나면 쪽팔리니까...”
“그 사람(김한정)을 하나 보내 갖고 먼지떨이를 떨어낼라 카는 거라.”
[명태균의 2021년 8월 5일 대화 녹취록]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명태균의 주장이 ‘사실일 것’이라고 응답(응답 간 격차: 29.4%p)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과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명태균 주장이 사실일 것’이란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오세훈의 주장이 사실일 것’이라는 의견은 국민의힘 지지층(60.1%), 보수층(49.0%)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오세훈의 주장이 사실일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하고 18-29세 남성층에서는 팽팽하게 나타남
‘명태균의 주장이 사실일 것’이라는 응답은 진보층(77.1%), 중도층(65.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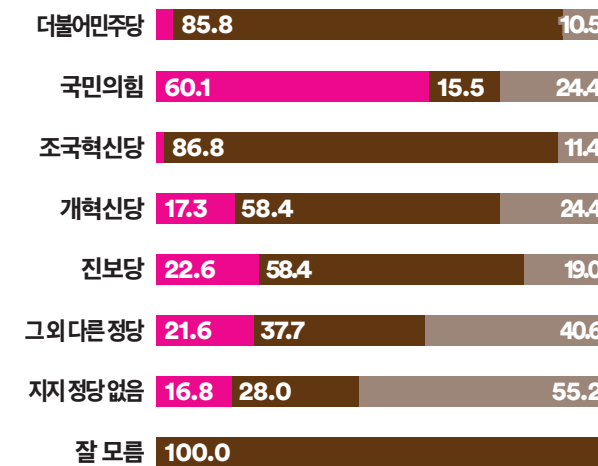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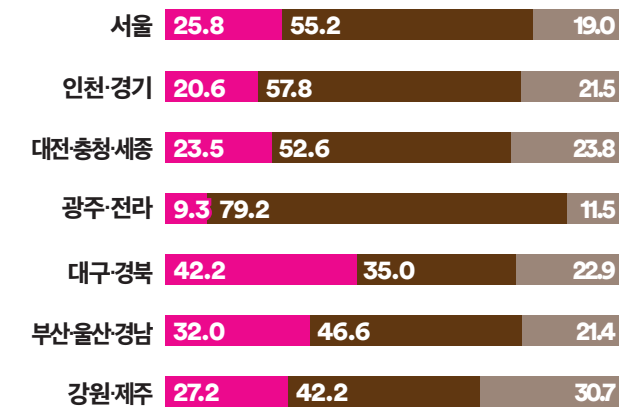
이념성향



정당지지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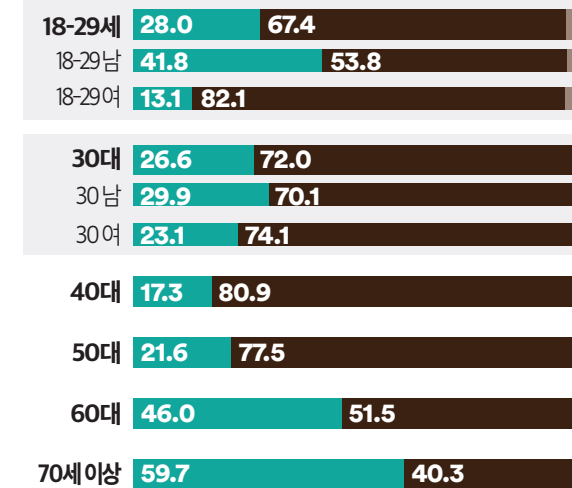
오세훈의 주장이 사실일 것이다 명태균의 주장이 사실일 것이다 잘 모름

Q. 윤석열이 군 통수권자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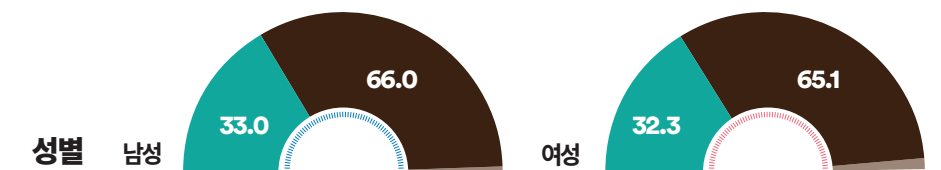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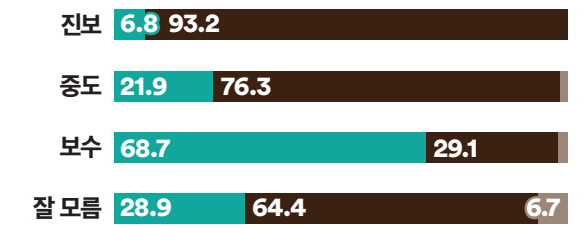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 3명 중 2명은 '윤석열이 군 통수권자로 복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압도적으로 응답(응답 간 격차: 32.9%p)
모든 권역,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복귀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복귀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진보층(93.2%)과 중도층(76.3%), 지지정당이 없다고 한 응답층(75.3%)에서 압도적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87.4%), 보수층(68.7%)은 '군통수권자 복귀에 찬성한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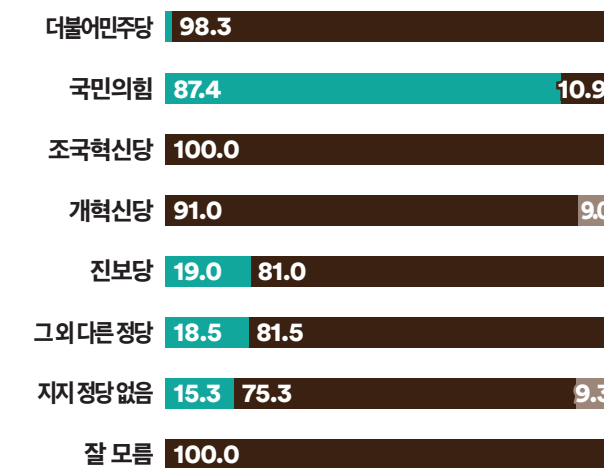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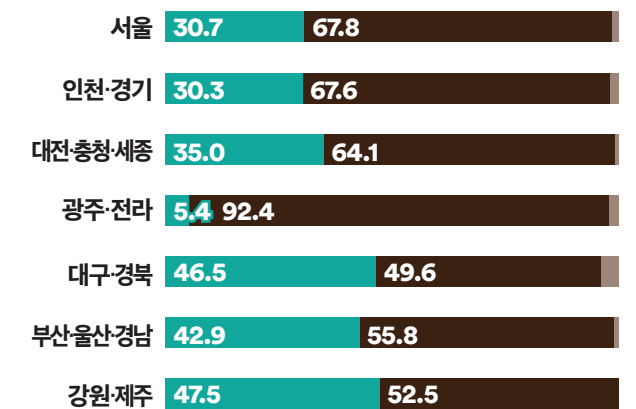
이념성향



정당지지도



권역



* 103차 정례조사 결과(2025.2.21~2.22 진행)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름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503_01
